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생각은 이미 사라져버렸으니깐요.

- 성전스님 -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통증 바로 알기 캠페인' 성료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6월 2일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통증 인식 개선과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통증 바로 알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완화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인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환자 중심의 통증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리플렛과 간식을 나누며 통증 관리의 중요성과 완화의료의 역할을 알리는 홍보 활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전등사 이주민 문화축제에서 한방의료봉사 실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6월 7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열린 제 21회 이주민 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에 참여해 한방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지원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동일 병원장을 비롯한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현장을 찾아 진료 상담과 침 치료, 한방의약품 제공 등 다양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실시했다.



(재)법보선원 '로봇수술센터 구축기금' 1억 원 기부

(재)법보선원은 지난 6월 3일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의 발전을 위해 '로봇수술센터 구축기금'으로 1억 원을 회향했다. 이번 기부는 용화선원 송담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로봇수술센터 구축을 위해 총 40억 원을 약정하고 현재까지 38억 원을 기부하며 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 12월 개소한 '송담 로봇수술센터'는 지속적인 지원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2월 로봇수술 누적 1,000례를 달성했다.



102병동 이하늘 간호사, 중국 공항에서 미국인 승객 소중한 생명 살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102병동 이하늘 간호사가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미국인 승객의 생명을 구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미국인 남성 승객이 공항 입국심사장 인근에서 발작 후 쓰러지자 이하늘 간호사는 즉시 기도 확보와 이물질 제거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환자의 의식 회복을 도왔으며, 현장 의료진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이하늘 간호사는 "평소 병동에서의 임상 경험과 병원의 체계적인 CPR 교육이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의료진의 전문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